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재월선사 '心月覺'

선사는 어릴 적부터 골상(骨相)이 빼어나고 성품이 덕스러웠다. 또한 또래들과 어울릴 때는 불사(佛事)놀이로 즐거웠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를 '이동(異童)'이라 불렀다. 10세에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던 선사는 출가할 생각을 품게 된다. 이러한 뜻을 알아챈 할아버지는 "네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의지할 데가 없는데, 너마저 나를 버릴 생각을 하느냐"고 출가를 만류했다. 그러나 선사는 15세에 천관사로 들어가 옥주선사를 은사로 삭발하였다.

구족계를 받은 선사는 도(道)를 배우기 위해 이름난 선비를 찾아다니며 시서(詩書)를 배워 사물(事物)의 이치를 깨닫는다. 하지만 선사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 깨달음은 세간의 도(道)일뿐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하는 일이 아님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처님 품

방장(方丈) : 선림의 구름에 차를 달이네.

선사의 깨침은 서리 앞의 숲(松)과 같고, 빈 가슴은 물 속의 달과 같다. 이러한 선사는 평생 배움과 나물밥으로 수행에만 전념할 뿐 세상의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았다. 심지어 입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러나 스승의 부름을 받고서는 유나(維那)의 직책을 맡아 남승(南僧) 몇 사람과 함께 출진하여 적을 물리쳤다.

이에 선조는 선사를 치하하고 선교양판(禪敎兩判)의 직책을 내렸다. 하지만 선사는 "만리의 긴 강물도 나뉘는 이를 씻어 가지 못한다"며 사양하고 묘향산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살았다. 그럴수록 선사의 명성(名聲)은 더욱 더 높아졌다. 사방의 학승, 수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큰 회상(會上)을 이룰 정도였다. 하지만 선사는 아랑곳하지 않

평생 배움 · 나물밥 먹으며 수행

묵언 용맹정진 3년만에 깨달아

안으로 다시 돌아온 선사는 원월 선사의 지도를 받은 다음 지리산에 들어가 현운 중덕 선사에게 경학(經學)을 두루 섭렵해 삼장(三藏)의 바다를 노닐었다.

30에 이르러서는 묘향산으로 들어가 청허 선사에게 수행하였다. 청허선사는 금추(金椎 : 부처님 뱃)로 서래의(西來意 : 달마가 서방에서 중국으로 온 뜻을 밝히자, 문자에 얽매어 있던 선사는 정해(正解)가 한꺼번에 풀렸다.

선사는 금강산 내원동에 들어가 묵언으로 용맹정진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늦은 봄, 비가 온 뒤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보름달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심월각(心月覺) : 마음의 달

應如雲不繫(표여운불계)
皓大明無痕(하대명무흔)
採藥蓬萊島(채약봉래도)
烹茗方丈雲(명명방장운)

구름처럼 나부껴 매이지 않고,
달처럼 밝아 그 흔적 없다.
봉래도(蓬萊島)에서 악을 깨고,

고 풍악산, 오대산, 치악산, 보개산 등으로 운수행각을 계속했다. 결국 76세 되던 해 금강산 선동에 암자를 짓고 7년 동안 주석하다 재월당(齋月堂)이라 집을 짓고 남자들을 제접하였다.

선사의 실법은 마치 구름과 같고 비와 같아서 그 연구(研究)가 천하에 가득하였다. 교해(敎海)에 앉았으면 이는 물결이 호호(浩浩)하였고, 선풍(禪風)은 심심(深深)하였다. 그리하여 선교(禪敎)의 학도(學術)들이 허(虛)로 왔다가 실(實)로 간 선자들이 수를 셀 수가 없어 법의 바다가 이루어졌다.

선사는 인조 10년(1632) "진흥소가 바다에 들어 그저 멀리 아득하나, 삼생의 한 큰 인연을 환히 깨닫거니, 무슨 일로 번뇌로운 생각이 다시 일어나, 재각(齋閣)에 달려와서 묵은 시를 청하는가"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입적했다. 세수 91세, 법랍 76세.

선사는 중종 37년(1542)에 장흥에서 태어났으며 법명은 경헌(敬軒), 법자는 순명(順命), 법호는 재월(齋月), 속성은 조씨(曹氏)이다. 아버지는 예창(芮昌)이며 어머니는 이씨(李氏).

■경주 해회선원 회주



◇송산스님은 30년 이상전 세계를 돌며 인종과 언어,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전법활동을 해왔다.

“우리는 오직 모를 뿐”



가까이서 뵈 큰스님

송산스님 (화계사 조실)

11월 29일 동안계 결제일.

계룡산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국제선원 무상사에서 3개월 동안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결제 법회가 열렸다. 이번 결제 법회에는 특별히 화계사 조실인 송산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해주시기로 한 까닭에 무상사는 아침부터 큰 스님 맛을 준비로 분주했다.

오전 10시경 송산스님과 화계사 대중들이 무상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대중들이 "헬로우, 하유어 유?안녕, 잘 지냈어요?"하며 서로 정경계 악수하고, 포옹하며 가벼운 볼 키스까지 나누는 풍경이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다.

송산스님도 대중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헬로 예브리바디(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제일입니다. 결제일이라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법회가 시작됐다. 무상사 선원동 2층 법당 앞쪽에 대중들을 마주보며 송산

스님과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 주지 오진스님, 그리고 통역을 맡은 도관스님이 나란히 앉았다. 주지 스님과 조실 스님의 짧은 인사와 법문이 끝나고, 송산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자들과 '공안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와서 결제를 하게 되고, 이곳 무상사가 수행하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무상사는 백두산에서부터 태백산을 거쳐 계룡산으로 이어진 국사봉 정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룡산은 그 드높고 신비한 힘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동학사, 갑사, 신원사와 같은 큰 사찰들이 계룡산에 자리를 잡았으며, 한국 근대 불교의 정신적 스승인 경허·만공스님과 같은 위대한 선사들이 이곳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2년 후 무상사가 완공되면 이곳은 옛 선인들이 예언했던 대로 한국을 두고,

세계를 도울 훌륭한 스승들이 여럿 나올 것입니다. 예로부터 큰 사람이 날려면 그 터를 보라고 했습니다. 명당이 아니고서는 훌륭한 도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 노력 모든 것이 들어맞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대중 모두가 저마다 큰 원력을 갖고, 무상사에서 참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 제도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송산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승속을 초월해 모든 대중이 똑같이 수행한다. 최근 재가불자들이 안거수행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스님은 스님들만의 공간에서, 재가불자들은 또 다른 공간에서 각각 따로 수행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파격적이다.

송산스님의 안거 수행지도 방법 또한 전통적인 한국의 수행지도 방법과 다르다. 철저한 묵언수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법회를 연다. 이때 참석자들은 수행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송산스님과 제자사이에 오가는 질문과 대답을 '공안인터뷰'라고 하는데, 송산스님은 이번 동안계 기간 중에도 화계사와 무상사를 오가며 공안인터뷰를 통해 제자들의 수행

“언제나 이순간 밖에 없다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

법문은 짧고 간단하면서도 힘찼다. 송산스님은 평소에도 긴 법문을 하지 않는다. 제자들의 질문에 간단한 대답으로 응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이는 순간 순간의 연결을 통해 제자와 스승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송산스님은 줄곧 이 방법을 고수해 왔다.

이날 법회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7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3개월간 무상사 선원에서 함께 수행할 것을 서원했다. 보통의 한국 선원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다. 승속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본성이

를 점검,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 30년간 해외 포교를 통해 송산스님이 배출한 서양인 제자는 5만명이 넘는다고. 제자들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서양철학에 심취하고, 기독교적 전통에서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지 못했던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송산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서야 비로소 그 의문들을 풀고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읽었던 많은 책의 지식과 논리적 근거들을 버리고, 원래 그대로의 본성이 마

2002 보드가야 깔라차크라 참가단 모집

석가모니 부처님 성불의 땅에서 달라이 라마와 만납니다.



- 일시 : 2002년 1월 17일(목)~2월 1일(금) / 15박 16일
- 향공련 : 아사나델리 직할
- 내용 : 성지순례 (루르드 대학 / 라자그르 / 보드가야 / 바라나시 / 시르노트) / 깔라차크라 관정 및 법문 (9일간 진행) / 인도 관광 (아그라 / 델리)
- 비용 : 1인당 230만원 내외 (20명 기준)
- 특기사항 : 한국인 가이드 2명, 한국식 제공 (요리사 대동)
- 신청마감 : 2002년 1월 3일(목)

예약 및 문의 : 정신세계원 02-747-7033 (담당 황길재) / 인도로 가는 길 02-723-0333 (담당 엄주실)

★ 깔라차크라 의식은 티벳 불교의 정수로서 공과 보리심,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깊은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만달라를 그리고 우주적인 에너지를 형성화하는 의식입니다.

정신세계원 서울 종로구 원서동 171 원서빌딩
전화 02-747-7033 / 팩스 02-747-7034 / 홈페이지 http://mindvision.org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4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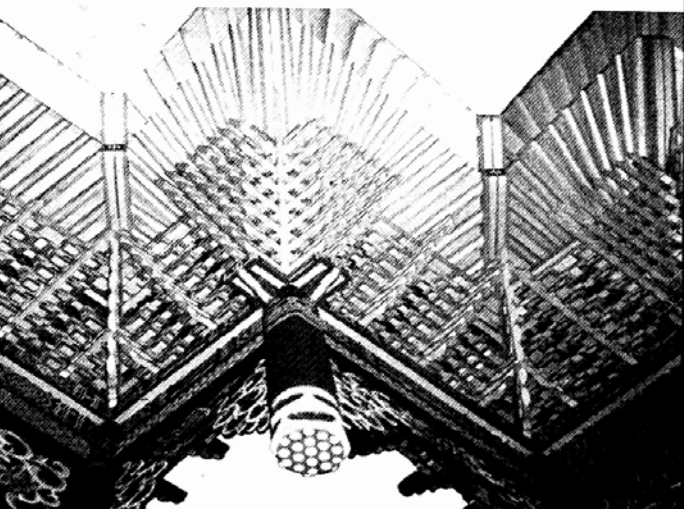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쇠통,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선축원, 불공식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원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6개월)	요장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 원서접수 : 2001년 12월 15일까지
- ◆ 개강일시 : 2001년 12월 17일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 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누리공방



불단 · 달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9130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